

특별기획 시리즈
제 169회

금성치과의원 원장

- 김 규 문 -

嘔吐

그리스에서 기원전 6~5세기의 의사는 당연히 지식 계급에 속했지만 그 지위는 그리스인이 건강을 특히 중시 했기 때문에 점차 높아졌다고 한다.

상류 계급의 자유민 출신의 의사는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만 치료하고 그에 대해서 사례를 받았다. 그의 조수나 노예는 이국인이나 노예의 병을 치료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한다.

물론 그당시에도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의사의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 그림은 「브리코스의 화가」에 의한 컵 내부의 기원전 490~480년경의 작품으로 嘔吐하는 남자와 조수를 그린 것으로 과일 액체나 어떤 극독물을 토해 내는 의료한 단면이다.

<뉘르쯔부르크 대학 박물관 소장>

